

즐거운 눈술여행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번주엔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저서 '미래추경'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한 고등학생의 의견수렴 실험을 인용하면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통신 혁명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 양상을 일컫는 '하이퍼폴리틱스(Hyperpolitics)'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트 국가 정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그들의 독재정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보를 정치엘리트들이 약용한다면 국민에 대한 통제가 과거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이런 상황을 묘사하였다. '빅 브라더'라 불리는 독재자가 감시 텔레비전까지 동원하여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심지어는 개인의 사생활마저도 빅 브라더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소설의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국가

정보통신 발달 바탕 주권의식 키워야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론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확산이라는 면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아무리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관한 판단을 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당연히 국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된다.

정책에 관한 주요 정보는 물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까지 장악하고 있는 정치엘리트와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독재정치가 출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컴퓨터나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주권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보화 사회가 제기하는 하나의 과제이다.



황현석

광주대생·초암농술이카데미 대표강사

'숙제' 아닌 '생활' 이쥬

즐거운 일기 쓰기

에나 지금이나 초등학교생에게 일기는 매일 고민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일기를 쓰도록 할 수는 없을까. 영상매체의 홍수 속에 사는 요즘이지만 눈술 등으로 인해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하루하루 알아서 일기를 적어 써내려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저 흐뭇할 뿐이다. 내 아이가 일기를 즐기도록 해보자.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기는 인성교육=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기쓰기 교육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글쓰기 능력을 기우려 위해 일기를 쓰는 것은 아니다. 교사나 전문가들은 "일기를 써서 글쓰기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덤'일 뿐 본질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일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금부초등학교 오주봉 교사는 "일기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듬는 능력을 길러준다"며 "특히 일기는 고운 심성을 갖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짧지만 일기장 앞에서 가지는 명상의 시간이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기는 부모나 교사와 대화의 창이기도 하다. 부모는 학교에서의 일을, 교사는 가정에서의 일을 아이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룻동안 느낀 점 진솔하게

◇좋은 일기란? =아이들이 하룻동안 느낀 점을 진솔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은 일기다. 그래서 '숙제'가 아닌 일과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기의 소재가 될 것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 학교 가는 길에 본 꽃, 친구들과의 대화, 수업 시간 등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관찰력만 기른다면 사실 '일기 쓸만함'이 없는 하루는 없다.

공부의 연장이라는 생각, 길게 써야 한다거나 잘 써야 한다는 압박감 등은 일기를 부담으로 느끼게 한다. 또 일

기를 통해 꼭 하루를 '반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에 없는 반성을 하기 보다 정직하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을 쓰고, 거기서 보거나 듣고 느낀 점을 적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속적인 일기쓰기를 통해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칭찬하거나 지적해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부모는 일기를 통해 아이와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 일기쓰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하루 동안 아이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네 느낌이 어땠어? 그걸 일기에 써보면 어떨까" 등의 말을 건네면 일기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아이들이 일기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기쓰는 일을 평소 실천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TV를 끄고 독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일기를 본 뒤 부모의 반응도 중요하다. "잘 썼구나"와 같은 단순한 코멘트 보다는 "이 부분 정말 재미있더라", "좀 더 자세히 관찰했던 모양이었다" 등 구체적으로 칭찬하거나 지적해야 한다.

또래가 쓴 일기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있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아이가 일기를 읽고 "어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애도 맞춤법 틀렸네" 등 일기쓰기가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면 반은 성공한 셈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움말=금부초등학교 오주봉 교사>

이런 일기 저런 일기

일기쓰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재의 빈곤 탓. 요일 별로 형식을 바꿔가며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어떤 방식의 일기를 쓰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관찰일기=일상에 관찰의 주체들은 널려 있다. 예를 들어 오이를 관찰한 다음 생김새, 맛, 껍질, 색, 쓰임새 등을 적으면 훌륭한 관찰일기가 된다.

▲편지일기=일반적인 일기는 산문의 형태를 띠지만 편지는 대상이 있다. 부모, 교사,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적으면 편지도 되고 일기도 된다.

▲학살일기=배웠던 내용과 느낌을 정리한다. 틀에 박힌 완벽한 정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여부 등을 적으면 된다.

▲만화일기=그림일기는 한 편의 그림으로 하루 일을 표현하는 반면, 만화일기는 4~6컷을 그려 이야기가 있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효도일기=효도한 일을 일기에 옮겨 적는다. 일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일부러(?) 부모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 일석이조다.

▲독서일기=책을 읽은 뒤 느낌을 적는다. 또는 책 속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 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상동권', '수표', '금방 금방', '내면민국', '베트남',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가평부동산전문', '광주경희건설', '신원부동산', '고원부동산', and '대지건설'.